매일 소풍처럼 '그라제' 축제 팡파르

내달 3일부터 광주예당서
극장·잔디광장 특설무대 등
첫무대 필 하모닉 내한 공연
시립예술단·매직쇼 등 다채

광주예술의전당은 10월 3일~5일 사흘간 2024 공연예술축제 '그라제'를 개최한다. 대극장, 소극장,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클래식, 국악, 연극, 대중음악, 퍼포먼스 등 총 12개팀이 공연을 펼친다. 올해 6회를 맞이한 그라제 축제의 주제는 '오! 늘 소풍'이다.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그라제 축제의 시간을 소풍처럼 즐기고, 삶을 늘 소풍처럼 살아가자는 희망을 담고 있다. 축제는 3일 오후 2시 대극장에서 150여 년 역사의 브르노 필 하모닉 내한 공연으로 시작된다. 브르노 필하모닉은 체코의 역사와 토속적인 민족주의 색채를 담아내는 박력 있고 에너지 넘치는 연주로 정평이 나 있다. 수려한 음색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브르노 필하모닉과 지휘자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 라이징 스타에서 거듭나 세기의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만난다.

같은 날 오후 4시 소극장에서 광주시립극단이 연극 '오스카와 장미할머니'를 공연한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가 장미 할머니를 만나 우정을 쌓으며 삶에 대한 지혜를 깨닫는다.

같은 날 오후 6시 20분 잔디광장에서 비눗방울 퍼포먼스 '버블타이거 버블 매직쇼'가 펼쳐져 가을 저녁을 수놓는다. 이어 7시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광주시립창극단 '판굿과 버꾸춤', 광주시립합창단 'All That Harmony', 광주시립발레단 '코펠리아 하이라이트'가 펼쳐진다.

4일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로 '야외음악회 with 그라제'가 오후 7시부터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김영언 광주시향 부지휘자의 지휘로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팝페라 듀오 듀에토 백인기, 유슬기가 무대에 선다.

소극장에서는 감성과 실력을 겸비한 디에이드의 'Holiday'가 오후 7시 30분 부터 열린다.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48호 가수로 알려진 안다은과 실력파 기타리스트 김규년으로 결성된 팀 디에이드는 드라마 '연애의 발견' OST '묘해, 너와', '너무 보고싶어' 등 히트곡을 가진 음원 강자다.

축제 마지막 날 5일에는 오전 11시,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초등학생을 위한 실험실 콘서트'가 소극장에서 열린다.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열리는 작은 공연을 컨셉으로 특별한 무대다. 콘서트 가이드 나웅준의 진행으로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김지은 교수의 해설을 통해 음악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관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여 결과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음악회를 선보인다. 클라리넷 조인혁, 피아노 원재연, 리수스 콰르텟이 선보이는 연주곡은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 하이든 현악 사중주 5번 '종달새', 슈만 피아노 오중주 1악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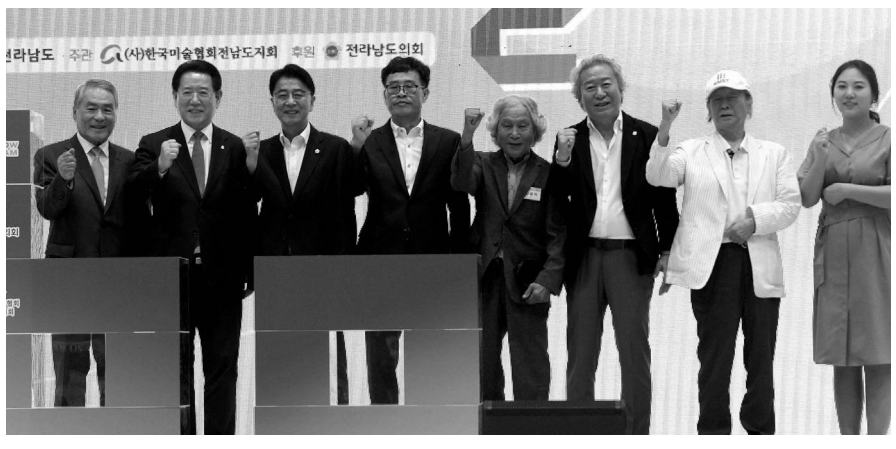
같은 날 오후 2시, 6시 대극장에서는 전 세계를 폭소로 사로잡은 대한민국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를 공연한다. 무술 고수 가족의 집에 엉뚱하고 귀여운 도둑들이 들어와 벌어지는 해프닝을 대사 없이 생생한 라이브 액션과 절묘한 코믹 연기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해가 저무는 잔디광장에서는 오후 5시 20분 버블 매직쇼를 시작으로 축제의 피날레 무대가 열린다. 피날레 1부는 중저음의 감미로운 음색의 김수영, 2부는 독보적인 음색과 뛰어난 감성의 김필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장 옆 전당 갤러리에서는 원로작가 고정희화백의 '황혼의 찬란한여정' 전이 열리고 있다. 구름과 바람, 산과 들, 꽃과 새 등 자연을 역동적으로 담아낸 작품 4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잔디광장 공연은 사전예매를 통한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공연 정보 및 티켓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8일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라남도미술대전 60주년 기념 전남미술제' 개막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전남미술인의 날 선포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미술대전 60주년 기념 '전남 미술제' 개막

전남 지역서 특별전시 진행

전남도미술대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 미술제'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막을 올렸다.

전남미술제는 지난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3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작가 전시회, 10월29일부터 11월5일까지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전남미술대전 60주년 기념 특별전시가 차례로 진행되며, 10월29일에는 학술강연이 열린다.

개막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예술단체, 소록도 해록예술회,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미술의 역사와 미래를 그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행사에선 도립어린이국악단과 광양시립소년소녀 어린이국악단의 공연에 이어 전남 미술인 등 참석자들이 숫자 '60'을 대형블록으로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전남미술대전의 60년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동안 미술 발전을 함께 이뤄낸 민관협력의 노력과 다가올 60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0명의 지역 작가들이 22개 대형 캔버스에 전남 시군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지역 이미지를 각각의 개성을 담아 실시간으로 그려낸 현장 대형 스케치도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민과 미술이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기증받은 지역작가 작품 100점을 추첨을 통해 관람객에게 증정하는 나눔 행사와 서예, 문인화, 수채화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기회를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지사는 "60년 역사를 지닌 전남도 미술대전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오신 미술인 여러분은 전남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오늘 개최

내달 2일까지… 시군 대표 20팀 경연
대상팀 한국민속예술축제 전남 대표

전남도는 30일부터 사흘간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남도 민속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47회 전남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민속예술축제는 사라져가는 남도의 전통민속예술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1966년 남도문화제로 시작했으며, 2009년 전남민속예술제로 명칭을 변경해 올해 47회째를 맞았다.

전남민속예술축제는 그동안 출연한 작품 중 광양 전어잡이 시연, 무안 들노래, 고흥 한적들노래 등 17개 종목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지역 민속예술 발굴 및 보전,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을 대표한 일반부 16팀, 청소년부 4팀, 총 20팀 750여 명이 참가해 농악, 민요, 민속놀이 등 전통민속예술분야 열띤 경연을 펼친다. 전남도립국악단의 식전 공연과 경연 중간 다양한 초청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개막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우철 완도군수, 문화예술단체장과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첫째 날은 완도 생일도 발광대놀이를 시작으로 8팀이 경연하고, 둘째 날은 순천 순천오장 상여놀이 등 8팀, 셋째 날은 구례 호남여성농악 판굿 등 4팀이 열띤 경연을 펼친다.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경연 마지막 날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2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부와 청소년부 대상 수상팀은 문화관광체육부가 주최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오지현 기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도슨트 운영

11월 30일까지 서비스 제공

(재)광주비엔날레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으로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도슨트 양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도슨트 양성교육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필두로 올해 제15회 광주비엔날레까지 이어져 온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동시대 미술 담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광주비엔날레를 통해 현대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찾아오는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도슨트 양성교육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아카데미 시민도슨트 양성교육 진행 모습.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찾아오는 프로그램'은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사무동 컨퍼런스홀 및 거시기홀에서 매주 화, 목 오후 2시 회차당 50명으로 진행한다.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와 역대 작품들을 소개하는 강의를 듣고, 전문 도슨트와 함께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하게 된다. 신청은 광주시 소재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및 광주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비엔날레로 현대미술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창설 30주년을 맞이해 더욱 확장된 동시대 미술 전시를 선보이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참여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기관이나 학교에서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하며, 광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공공기관 등이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신청접수는 (062-940-596)로 문의. **도선인 기자**